

## 委陵菜에 대하여

權 重 顏  
(서울 第一 韓藥房)

委陵菜는 손쉽게 구할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부작용이 적은 약재이다. 본인이 委陵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故 申佶求 先生의 講論을 듣고 부터이다

申先生은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약초 몇 가지를 이르고 그중 하나로 委陵茶에 對하여 關心을 갖도록 해주었다

본 委陵菜는 「申氏本草學」에 나온다 薔薇科에 屬한 多年生 草本인 딱지꽃 찰랑(平安) 달 갱이(瑞山)의 全草라고 되어 있다.

異名은 虎眉草이며 산지는 우리나라 各地의 原野나 海邊에 分布한다.

統論에서 委陵茶는 救荒植物로 庚辛玉冊에 처음으로 기록되고 藥用으로 사용되기는 우리나라가 그 矯失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1928년에 京城의 醫生이던 崔景燦先生께서 肺結核으로 인한 各血에 本草를 利用하여 治療하던 處方을 當時의 朝鮮漢藥組合 月報에 投稿하였는데 그 處方에서 委陵茶를 漢字로 虎眉草라 쓰고 그 止血의 效를 力說하였다

그 處方은 虎眉草 二~七錢(大劑一兩) 馬兜鈴 紫莞 各 1~2錢 瓜蒌仁 桔梗 半夏 陳皮 咯 7分~一錢 貝母 款冬花 金沸草 各 五~七分 清水煎服 하라 되어 있다

申先生은 그 實物을 把握코져 苦心中 三年余만에 서울 마포區 孔德洞 大院君墓 附近에서 採取하였고 그뒤에 全國적으로 分布 繁盛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식물은 채소로 春期에 食用으로 사용하고 止血藥으로 아직 一般에 普及되지 못하고 民間藥으로 쓰이다가 최근에야 겨우 治血하는 處方에 京鄉各地의 韓醫學者가 利用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解熱劑로 柴胡 대신에 쓰는 例는 小泉榮次郎의 著書(和漢藥考)에 실려있고 中國에서도 아직 使用함을 듣지 못하는데 獨逸藥局方에는 이미 收錄되어 있다

임상응용으로는 肺咯血 肺디스토마에 加味四物湯 委陵茶 5錢~七錢 熟地黃 當歸尾 二錢 白芍藥 天穹 各 一錢 白及末 五分 白及末은 藥煎水로 調服하라고 하였고 子宮出血 子宮癌과 便血과 痔出血等에 臨壯의 實例를 들어 그 止血의 效를 力說하며 한방 止血劑의 代表的인 三七根을 代用할 수 있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한편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藥理學教室 洪思岳 博士의 研究에 依하면 莖葉보다는 根部가 더욱 有效하며 그 止血에 대하여 부작용이 없으

로 트림보겐(양方止血劑)보다 優秀함을 證明하였다 한다.

또한 다른 서적에서 찾아보면 前 東洋韓醫大 劉時明 先生과 서울大學校 藥學大學 韓大錫 博士의 共著로된 本草學에서는 柴胡項에 本 委陵菜가 一部 나오는 것을 볼수 있다. (前略) 北柴胡의 根은 香味가 完全하며 質이 유연하다 一名 銀柴胡 委陵菜라 하기도 하며 上品으로 한다. 南柴胡는 질이 좀 떨어진다. 種類 委陵菜(薔薇科) 山野 特히 河原產地에서 自生하는 多年生 草本인 Potentilla Chinesis Seninge(中國產)

藥理作用은 溫中樞刺戟에 依하여 發熱된 家兎에게 柴胡 기타 諸種의 韓方解熱藥을 각각 煎劑(2:100)하여 體重 1kg당 2CC를 口經으로 투여하고 그 結果를 보면 柴胡가 가장 有效하며 1~1.5시간으로 常溫 以上로 體溫이 降下하고 이후 再次 서서히 上升 하였다. 柴胡는 말라리아 원충의 발육을 억제하며 또 박滅하는 作用도 있다 效用 解熱藥으로 말라리아 및 潮熱 胸脇苦滿을 治하며 傷寒等 전염병의 弛張熱 等を 治하며 其他 各種 神經官能性 질환 興奮性易怒 婦女官能性 月經不順 精神不安等 病을 들고 있어 柴胡의 作用과 같은 점을 말한 듯하며 比較적 최근에 나온 中藥大事典에는 申氏本草學과 共通된 내용 이외에도 그 식물 의 栽培방법 채취시기 및 임상보도 내용등 자세한 설명이 보인다

원식물은 Potentilla Chinesis Sel이며 그 식물의 形態와 성분 등을 밝히고 있다.

그 성분은 自然狀態에서 水分 62.39% 抗坏血酸 49.41% 이고 乾材에서 水分 12.12% 蛋白質 9.18% 저섬유질 21.89% 脂肪 4.03% 회분 7.25% P<sub>2</sub>O<sub>5</sub> 0.26% CaO 2.63% 藥理作用은 아메바성 原蟲에 對한 작용은 白頭(할미꽃)보다는 약한 듯하며 性味苦平하며 救荒 植物로 味苦微辣 또는 微苦性平 無毒 澁苦寒 無毒하다

申先生은 性 溫無毒 味甘한데 微若하며 歸經은 肺 大腸 腎의 三經 功用主治는 祛風濕 解 毒 治痢疾(아메바성 세균성) 凡溫 筋骨疼痛 疔瘡 癩疥(다린 물로 씻음) 清熱解毒 等

用法 가) 內服 煎物 五錢~一錢 研末 或浸酒 外用 煎水洗 搗敷或末산(中藥大事典)

나) 申佶求先生 一錢~二錢(금기 別로 없음)

다) 崔景燦先生 二錢~七錢 六劑 一再

라) 劉時明 韓大錫共著 普通用量 1日 4~12g 말라리아 및 黑水病에는 1日量 50g을 2時 間 煎出하여 使用한다.

臨床보고(中藥大事典) ① 各種出血性病患에 生物 新鮮한 全草 2~4錢(건조품으로는 五錢 ~一兩) 切碎 水煎 二次 再次煎液混合加入 少量紅糖 再煎片刻 二次分服 每日 一劑 必要時 可 續服 一~二劑 할 수 있고 觀察에서 機能性子宮出血 月經過多 鼻出血 血處和 部分癌病性出血 等 112例에서 治愈 66例 有效 29例 等으로 婦人科 病患에서 效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內

科 계통이며 特히咯血 一例에서는 乾燥된 根 一兩을 사용한 결과 다음날咯血이 멈추었다는 내용도 보인다.

② 急性 細菌性痢疾 委陵菜 건조된 根으로 만든 20% 溶液을 每次 60毫升(60CC로 추산됨) 每日 口服 二次 또는 20%로 만든 주사액을 근육주사 처음 2CC(毫升) 점차로 증가시켜 35毫升까지 每日 1~2次 주사나 口服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20% 溶液을 60毫升을 行保留灌腸(관장식으로 대장에 넣어서 흡수시키는 방법 같음) 每日 1~2次 투약기간은 2~10일로 일정치 않음

가) 주사제 치료 52例 治愈 49例 호전 3例 每例平均 사용량 3 4克(g으로 생각됨)

나) 口服 3例 治愈 二例 호전 1例

每例平均 사용량 82克(g)

다) 주사(근육)와 口服병용例 9例 治愈 8例 호전 1例 每例 平均사용량 59 8克(g)로 내용이 보인다

以上에서 주사요법이나 장을 통한 투여방법은 우리 韓方的 투여방법의 大宗인 口服方法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나 요는 委陵菜의 有效를 실험한 과정임을 감안하여 그 성적에 주목할 가치가 있겠다.

③ 아메바성 이질 완전히 자란 委陵菜 根 또는 全草를 달여서 만든 村나 又は 流浸膏(엑기스로 생각됨) 복용

어른 每日量 20~30克(g로 생각됨) 이것은 生藥 무게로 計算한 것 같음 三次 分服 小數患者는 變用하여 10% 煎液을 100毫升을 大腸에 관장시키는 法으로 7~10일을 투약기간으로 실시 필요시는 1~2일간을 體毫한후 다시 투약함(2차로)

임상치험 27例 그 가운데는 急性 慢性 또는 만성으로 잠복되었다가 急性으로 發病한자 포함 된듯함

服藥后 發熱病者는 대체로 신속하게 체온이 下降하였으며 腹痛 里急后重 腹瀉及 粘液大便을 자주보던 증상도 1~4일 정도로 없어졌다. 현미경상으로 대변에서 균이 음성으로 변하는 시간은 약 3일정도 였으며 8例에 경과 관찰 추적에서 1例는 1개월후에 재발하였다 따라서 만성 잠복성 환자는 철저한 치료와 관찰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자세한 내용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申佶求先生이 總論에서 말한 中國에서는 사용함을 아직 듣지 못하는데 云云 하심은 잘못된 것이다.

본인은 申氏本草學 委陵菜項에서 처방 3項 加味膠艾四物湯 治胎漏 腹痛 或 胎動下血 半產下血 委陵菜 一錢 熟地 當歸 白芍藥 川芎 阿膠 艾葉 各 二錢 黃芩 白朮 砂仁 香附子 各七

權重顏

分 1 撮 清水煎服 空心服을 使用하고 있다. 다만 본인의 외람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委陵菜에 大劑使用時는 胃機能을 도와주는 藥物의 變用이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韓方은 證과 方이 一致해야 소기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藥物에서는 藥理作用을 多角的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其一部分만을 이용하고 있는 點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예가 바로 委陵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崔景燦先生과 申佶求 先生은 上血作用을, 일본에서는 解熱作用을, 劉時明先生과 韓大錫先生은 柴胡와 같은 作用을, 中國에서는 주로 止血作用과 疝氣治療에 利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응용의 여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韓方人은 이런 藥草의 研究에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다.

別李禮長

桐花露夜落 海樹春雲空

芳草一盃別 相逢京洛中

벗과 헤어지며

오동꽃잎은

밤안개속으로 떨어지고

바닷가 나무위엔

봄 구름만 떠 있구나.

플 발에서 한잔 술로

헤어지지만

서울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나겠지

-朝鮮朝：李達-